



제37회 2020년 환경주일
6월 첫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감리교)

작은생명 하나까지도

기후위기시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4)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한국구세군 |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목 차

발간사 :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출발, 환경주일

/ 3

환영사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 4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

/ 5

생명 살림의 편지 1

/ 6

생명 살림의 편지 2

/ 7

환경주일 설교문 :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

/ 8

제 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식서

/ 11

환경주일 예식서 : 떼제 예배문

/ 13

환경주일 주제해설 :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시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 16

환경주일 선언문 : 기후위기 비상사태, 한국교회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20

추천 도서

/ 22

추천 영상

/ 23

발 간 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출발, 환경주일

오동균 사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올해의 갖가지 캠페인과 이슈가 축소되고 없어지는 가운데 환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환경주일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기후위기사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여 년간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물질들이 지구의 유지조건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달려왔습니다. 자본주의적 발전은 욕구의 무한확장과 무한경쟁을 원리로 작동해 왔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제약되지 않는 발전은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멈추고 다양한 생물들의 공존해야만 합니다. 생명다양성을 유지하는 일은 절박하고 커다란 위기인 기후위기를 멈추고 지구의 종말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지구를 살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동이 줄어들고 비행기의 운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생산공장이 멈추자 생물들의 변화는 아주 빠르게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희귀동식물들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지구상의 생물 존재들 뿐 아니라 대기와 물, 그리고 그 외의 환경조건들이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병들어 생산을 멈추고 이동을 줄이자 금방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이것은 생명에 의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생명을 거스르게 되는 순간까지 무한 확장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이 확장되어 나타난 결과는 너무 무자비한 파괴이지만 또 그 욕망을 멈추었을 때 다른 존재들이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발견이며 또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의 환경주일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 영 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양재성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씨 맺는 식물과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돌아나게 하여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창 1:11,21)

2019년 11월, 전 세계 153개 국가 1만 1,258명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기후비상사태’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일도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향후 10년 안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류는 거대한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 위기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연간 동식물 4~6만종이 멸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실제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지구상의 생명체 20~30%가 사라지고 2도 상승하면 30~40%, 3도 상승하면 40~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올해 1월 한반도는 평균 기온보다 3,8도나 높았고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이번 이상기온으로 생태계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인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는 한 달 가까이 빨라졌고, 제주도릉농의 산란시기가 한 달 앞당겨졌으며, 대부분의 봄꽃들이 20여일이나 빨리 개화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산과 제주도에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여 야생동식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초대형 산불은 한반도보다 더 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야생동물 12억 5천만마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실제 기온상승은 전염병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도 상승할 때마다 4.7%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도 지구의 온난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는 국회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탄소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 9위(2018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1인당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실행지수는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는데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은 경제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대형국책 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인데, 이는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새만금 사업, 핵발전소 및 양수발전소 건설, 도시재생 뉴딜, 동남권 신공항 등 대규모 생태계 파괴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국가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기 질을 높였고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류는 놀라운 학습효과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우선 사회구조를 생명 중심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류는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변하지 않으면 변화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참혹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입니다. 어떤 생명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생명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회적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생명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임을 자각하고 이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없이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함으로써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도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동식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러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멈추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게 하옵소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살림의 편지 1

고시연 (홍천 속초초등학교 5학년), 차정현 (홍천 속초초등학교 4학년)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짹짹, 쪼로롱 쪼로롱, 삐삐, 푸드덕 푸드덕

이름도 모르는 새들이 “어서 일어나! 아침이야!”라고, 부드럽게 깨워요.

학교 가는 길

진달래, 철쭉, 꽃잔디, 냉이꽃, 꽃다지, 색색이 예쁜 꽃들이

“상쾌한 아침이야!”하고 반갑게 인사해요.

우리 동네 길을 걸으면

커다란 은행나무, 까실까실 밤나무, 하얀 자작나무를 만나요.

“이제 나도 푸른 싹이 났어!”라고 자랑하며 말을 걸어요.

내가 만든 텃밭에는

토마토, 대파, 가지, 상추가 살아요.

“어서어서 자라서 멋진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귓속말로 속삭여요.

깜깜한 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달과 별들이

“잘 자,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해요.

우리 집 뒷산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잣나무가 있어요.

아침마다 푸르른 잎사귀를 흔들며 “정현아~”하고

얼굴에 시원한 바람을 후~ 불며 장난쳐요.

눈부신 햇살과 함께 나를 반기는 새,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들,

잠들기 전 평화를 선물해 주는 밤하늘의 달과 별

다양한 생명들이 날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난 너야, 넌 나고.”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우린 하나야,

난 너와 늘 함께 하고 싶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생명 살림의 편지 2

김만자 권사 (동면교회)

저는 시골,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꽃에 유난히도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서 피어나는 꽃과 풀, 나무 등등을 보고 자라난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렀네요.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아이들을 보면 제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일 들을 하듯,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 취향, 취미, 심지어 지문까지 다르듯 그렇게 다양한 것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꽃과 나무들의 다양성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공부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학교에서 오면, 밖에 나가 정말 원 없이 자연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기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농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종 다양성, 그 수많은 종 다양성이 하루에도 인간의 이기심 욕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지난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 홍천의 작은 농장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꽃과 나무인 다양한 종류, 우리 것들을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어보고자 하오니 함께 관심 가지고 살펴 듣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장에는 300여 개의 꽃과 나무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다양한 종인 곤충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핀다는 복수초, 노루귀, 한계령풀, 깽깽이, 얼래지, 앵초, 수선화, 동의나물, 소라쟁이, 할미꽃, 처녀치마, 금낭화, 바람꽃, 현호색, 중의무릇, 비비추, 개미취, 제비꽃, 원추리, 해당화, 서부해당, 피나무, 매미꽃, 삼지구엽초, 산철쭉꽃, 으아리꽃, 큰으아리꽃, 바위속꽃, 나리꽃도 10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동자꽃(우단동자), 초롱꽃, 기린초, 수국, 불도화, 노루오줌, 쥐오줌 풀, 망종화, 양귀비, 골무꽃, 용머리꽃, 붓꽃, 창포, 인도초, 수련의 종류도 꽤나 많습니다. 바늘꽃, 물매화, 구절초, 용담, 물래나물, 모시대, 부추꽃, 썸범애꼬리, 국화, 범부채, 금강초롱, 쭉부쟁이, 맥문동, 상사화, 삿국나리, 꿩의다리, 아주 최근에 등록이 된 우리나라 1급인 개느삼이란 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종이 더 있습니다.

나무로는 산당화, 매화, 박태기, 희어리, 마가복, 조팝나무, 골담초나무, 야광나무, 으름나무, 해당화, 안개꽃나무, 화살나무, 계수나무, 민병초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으스라지나무(산앵두나무라고하네요). 병아리꽃나무, 병꽃나무, 근래등록 된 미선나무도 있지요. 이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과실수와 활엽, 치엽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 주일 연합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다양성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라져가는 생명다양성의 아픔에도 함께 맘 모아 기도합니다.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종을 지키기에 정성을 모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020년 환경주일 설교문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

백영기 목사 (쌍샘자연교회)

‘하늘은 얼마나’

반철환

하늘은 얼마나 먼지 어떤 새도 끝까지 가본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가까운지 키 작은 아이 손도 닿지 않은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따스한지 아무도 품지 않은 사람 없고
하늘은 얼마나 시원한지 아무리 뜨거운 굴뚝도 식히지 않은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망치도 깰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떤 새순도 다친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좁은지 눈꺼풀보다 작고
하늘은 얼마나 너른지 하느님도 벗어난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든 영혼을 다 싣고
하늘은 얼마나 가벼운지 풀잎도 이고 있고
하늘은 얼마나 바쁜지 날마다 별들을 나르고
하늘은 얼마나 태평한지 천 년째 푸르고.

요즘, 높고 푸른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하늘 아래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무수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생명이면서도 고리처럼 연결되고 연합된 큰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누가 이 생명의 존재와 힘을 거스리며 막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많이 지치고 상해 아픈 세상이라고 하지만, 자정 능력이 있는 지구는 서로를 보듬어 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고 이렇게 견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인류의 행보는 일단 멈춰 섰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분석, 그리고 전망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가장 다양한 형태를 띤 생명체로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나쁜 게 아니듯, 바이러스는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환경주일의 주제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입니다. 너무 작아 감지할 수조차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패턴

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작은 생물에 눈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스웨덴의 어린 소녀 톤베리는 희망보다 더 필요한 것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고발했습니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흥기빈 소장은 40년간 세계를 움직여 온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생태적 위기에 빨간 불이 켜졌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회와 자연 모두에게 좋은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인류에게 바이러스만이 위협이 되고 두려운 것일까요.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삶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테러나 전쟁, 원전이나 핵무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문명 방향과 만족을 상실한 욕망이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코로나 19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삶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모두가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해야 합니다.

땅의 탄식과 못 생명들의 신음, 작고 여린 생명마저 씨가 마르게 되었고, 이토록 세상이 무법천지가 됨은 어찌된 일입니까? 묻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1. 생명의 가치를 네 머리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제 목숨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다른 생명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인간의 모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무게를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29의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라지가 거슬리느냐, 보기도 안 좋고, 곡식에 해도 되고 그러니 깔끔하게 가라지를 뽑고 싶겠지만, 자칫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니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는다면 자칫 알곡을 뽑을까 전전긍긍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도 수단이 되고, 돈의 방편이 되는 이 안타깝고 허술한 세상에 주님은 목숨이 잘 못 될까 봐 조심해라, 차라리 그냥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듯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렇게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의 신앙이 생명의 가치를 하늘과 같다고 말해야 하고 교회가 그걸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작은 생명은 뿌리와 같다고 하십니다.

작고 낮고 약한 생명의 세계는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크고 강한 생명일수록 작고 약한 걸 먹고삼니다. 생태계의 세계는 참으로 알 수 없고 신비롭습니다. 자연엔 약육강식이 가장 극명하게 존재하지만, 작고 약한 모든 생명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그물망처럼 연결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작은 생물들이 땅의 숨을 불어넣어 기름지게 하고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합니다. 땅에서 자란 수많은 식물과 결실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생명은 살고 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잃은 한 마리의 양 이야기(마18:12)는 작고 약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작고 약한 생명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된다거나 불필요하다

고 생각되면 주저 없이 없애 버립니다. 자연의 질서와 공존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1) 했지만, 인간은 이 모든 걸 민망하도록 계절과 낮 밤을 바꾸고 생태계를 바꾸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중심의 개발을 멈추고,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려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피 주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작은 생명은 뿌리와 같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생명 하나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삶의 공유가 확장되는 녹색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걸 초월해 있고, 전부다 하나요 하나가 전부인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 유대와 이방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물듯이 말입니다.

선교는 그동안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녹색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자연의 모든 생태계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녹색교회는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과 삶의 공유가 확장되는 곳입니다.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은 그 존재가 확장되고 공유됩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의 부활과 복음에 단단히 서서 세상이 감당 못 할 놀라운 사상과 실천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를 잃고 자신마저 추스르기 힘든 오늘의 상황에 녹색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수많은 생명을 내듯이 녹색교회를 통해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세상이라지만, 늘 답은 문제 안에 있듯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대안적 삶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전염병과는 또 다릅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와 대부분이 멈춰선 지금 각 나라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이 아닌 로컬을 진지하게 고심해야 하고, 경계를 넘어 자연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윤과 효율성이 과연 무엇인지와 소비와 버림을 미덕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결국, 녹색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꽃처럼 아름답게 하고, 삶은 향기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식서

※ 여는 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후위기의 시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을 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함께 :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살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며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 찬 송 /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 다함께

생명살림의 기도 / 맡은이

찬 송 / 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말씀봉독 / 예레미야 12장 4절 / 맡은이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 교 /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 / 맡은이

생명살림의 편지 낭독 / 맡은이

공동기도 / 다함께

※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명살림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살림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쓰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며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파송의 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함께

♩ = 80 류형선 작사작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셋어 주소서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교
 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
 리 리

1. G(add9)/D 2. G(add9)/D D

※ 축복기도 / 말은이

2020년 환경주일 예식서



✠ 노래 / Songs

23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여.

✠ 시편 / Psalm 104 / 시편 104편

69 할렐루야 2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서를 맡으신 분이 시편을 읽고, 시작과 시편낭독 사이에 노래를 함께 합니다.)

+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 복음 / Gospel / 누가복음 12:27~28

+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 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 노래 / Songs

5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 침묵 / Silence

✦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 / Intercessions

55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순서를 맡으신 분이 기도문을 읽고, 시작과 기도 사이에 노래를 함께 합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주 안에 계시며,

당신의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오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다정함으로 감싸 주소서.

†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긴밀히 결합됨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 사랑하는 하나님,

지구를 돌보기 위한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 창조자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뒷받침해 주소서.

† 주님은 삶의 샘물이시니,
여기 모인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 주기도문(주님의 기도) / Our Father

✝ 마침 기도 / Prayer (알로이스 수사의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 때,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
당신에게서 오는 모든 것,
당신의 자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모든 창조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세계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노래 / Songs

119 저 너머 계신 당신.

저 너머 계신 당신 아무도 알 수 없어, 숨쉬는 모든 만물이 애타게 주를 그리나이다.

51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 사랑의 주님.

39 자비하신 성령.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예배 안 설명]

1. 떼제 공동체의 창조절 기도자료를 신한열 수사님(프랑스)이 번역하여 제공해 주셨습니다.
2. 노래 제목은 신앙과 지성사의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을 참조하였습니다.
3. 노래는 기타 혹은 단순한 악기구성으로 인도자의 시작과 마침을 따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4. 기도를 위하여 준비된 공간에 작은 십자가, 촛불, 화분에 담긴 꽃이나 식물 등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5. 본 예배 안은 '2019년 감리교 환경주일 생태예배안'을 수정보완 했습니다.

2020년 환경주일 주제 해설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사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올해 환경주일 주제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사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제 37회를 맞이하는 이번 환경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최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위기상황이 되어버린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명다양성의 감소와 생물멸종에 대한 위기를 함께 고민하며 한 국교회가 환경주일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호소와 함께 전 세계 수억 명의 ‘결석 시위’와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 1200개 지방 정부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세계 시민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문제 제기에 그친 기후변화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시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부족하고 안이해 보입니다.

기후위기와 호주 산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작년 여름 발생해 9개월간 계속된 호주 산불입니다. 호주대륙은 인도양의 쌍극화(DIPOLE) 현상의 영향으로 매년 여름 덥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강화되어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산불이 전 호주대륙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호주는 1910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기온 또한 가장 높은 섭씨 48.9℃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호주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1,000만 ha(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호주 산불의 대재앙 속에서 희생된 코알라와 캥거루 등 야생동물은 12억 5천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조사되지 않은 동물들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생명이 이번 산불로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호주대륙에서만 서식하던 쇠주머니쥐와 희귀개구리들은 멸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난 등을 발생시켜 생태계의 취약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가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생물들의 멸종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의 현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는 박쥐에게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입니다.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와 2012년에 발생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야생동물을 통해서 인간에 전파되었습니다. 박쥐, 낙타, 돼지, 조류 등의 동물에서 살아가던 바이러스는 여러 번이를 거쳐 사람에게도 전파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중간 매개체는 개미핥기의 한

종류인 천산갑이라는 연구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감소와 인간의 남획 등으로 인해 빈번해진 야생생물과 인간과의 접촉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에 따르면,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 전체의 14%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의 77%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의 땅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개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야생생물이 살아가던 서식지를 침범하여 경작지를 만들었고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지와 축산의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탄소흡수를 감소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할수록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지구 보고서’

2019년 5월,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에서 발표한 지구보고서는 생물멸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IPBES 지구보고서는 1970년대 이후 인간 활동의 급격한 증가가 생태적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포괄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지표면 75%가 현저히 변형되었고, 해양 지역의 66%가 치명적인 상태에 있으며, 85% 이상의 습지가 사라졌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3천 2백만ha(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손실되었으며, 산림의 파괴는 지속불가능한 속도로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해 약 1백만 종의 동식물 종들이 현재 멸종 위험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00년 동안 이미 680종 이상의 동물 종이 멸종되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속도로 멸종이 진행되면 농업 시스템의 탄력성이 손상되어 세계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생물 멸종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변용과 파괴를 들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맞물린 토지 이용의 확대와 동식물에 대한 포획과 착취 등이 오늘날의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의 결과인 환경오염과 외래종의 침입, 그리고 기후변화도 생물 멸종에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기반 한 생산 및 소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현재의 생물 멸종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긴급성명서’

지난 2019년 5월 27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행위원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WCC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이들 중 50만 종은 생존할 수 있는 서식공간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야생생물의 서식처인 숲과 삼림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삼림면적에 해당하는 650만ha가 해마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WCC 긴급성명서는 생물 멸종의 위기 앞에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는 삶을 제안하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 지금의 에너지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성명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 멸종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생물 멸종이라는 생태학적 문제

를 인권, 부의 공평한 분배 등과 함께 언급하며 교회가 사회구조적인 문제, 즉 성차별,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CC 성명서는 교회가 생물 멸종의 문제를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신앙공동체가 구조적이고 변혁적인 세계변화를 견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다양성(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의 이해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생태적 지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증진 시킴으로써 생명다양성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생명다양성의 개념은 1988년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의 저서 ‘바이오피피아’(Biophilia)에 처음 언급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학문적으로 생명다양성이란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줄인 말로, 지구의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생물 개체들이 서식하는 생물 종(Species)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같은 종 안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다양한 유전자(Gene)의 다양성과,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과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생태계의 다양성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자, 지구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다양성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설명처럼 “인간과 이웃 생명들을 포함하여 이 땅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과 삶의 방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생명다양성(Biodiversity)은 하나님이 한 처음 창조세계를 만드실 때 창조의 섭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생명들은 그 다양성 속에서 온전한 세계를 구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지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명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다양성의 뜻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와 생명다양성

구약성서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보여주며 생명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은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인간을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2장 18-19절)

창세기 2장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거드는 첫 번째 짝이 동물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으로 다시 사람 하와를 보내주시지만, 그 이전에는 동물들을 통해 사람의 삶을 돕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들을 만난 후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그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진정한 창조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창조의 생명다양성 속에서 각각의 삶과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각각의 식물들도 각각의 삶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첫 3년 동안에는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썩게 만들어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라는 레위기 19장 23-25절의 이야기는 식물들의 온전한 생명을 위해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음을 통해 농지의 생명다양성

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개인의 토지소유를 49년으로 제안하는 희년 사상은 사회적으로는 토지의 세습화와 사유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는 토지의 오염을 막고 토지의 생명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창조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돌아보는 것이 생명다양성을 회복시키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참고 자료]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 최재천 외 6명 지음 /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 궁리 / 2010
2.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서 / ‘The WCC Executive Committee Statement : The Global Biodiversity Crisis and the Urgent Need For Structural Change’ / <https://www.oikoumene.org>
3. 환경부 / 생물다양성(IPBES) 관련 자료 /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전 세계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혜택 급속 악화 경고’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61784>

2020년 환경주일 선언문

기후위기 비상사태, 한국교회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 재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 해수면의 상승과 해안 저지대의 침식, 토지의 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병충해와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의 산불과 산호초의 괴멸,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와 생명다양성의 저하, 기후난민의 발생과 기후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로 인해 생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국 우리의 무지와 탐욕의 결과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의 생명을 돌보고 살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참회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성서와 신앙의 전통에 비추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의 해결이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임시방편으로써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자하는 신앙의 결단과 공동체적인 변화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인간중심의 삶, 경제우선의 사회체제가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기억하며, 생명 중심의 삶,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긴박하고 가장 위중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37회 환경주일을 맞아, 창조세계의 온 생명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가운데 교회를 창조세계의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정부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파의 입장을 떠나 속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구적인 기후정의를 위해 기후난민을 지원하고, 기후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이끌어가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보호와 복원에 앞장서 생명다양성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의 동역자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교회가 창조세계를 온전히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기후위기를 초래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생태정의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각 교단과 온 교회가 힘을 합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조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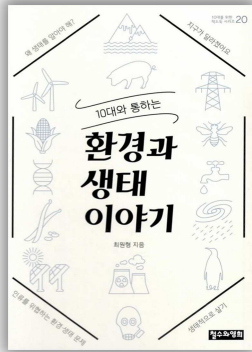
아울러 예배를 통해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함께 고백하고, 교육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와 더불어 기후약자들을 돌보며 생명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생태환경선교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참회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기후위기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참회와 변화를 향한 뜨거운 노력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2020년 5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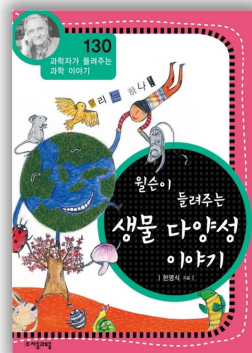
제 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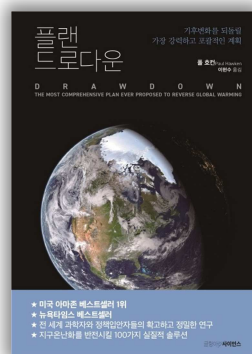
추천도서 1 :
“10대와 통하는 생태와 환경이야기”
 최원형, 2015, 철수와 영희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생태환경 주제들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이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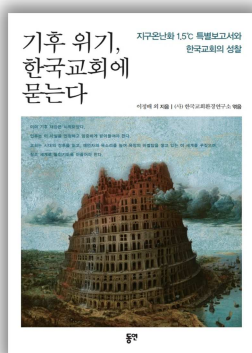
추천도서 2 :
“월슨이 들려주는 생물 다양성 이야기”
 한명식, 2020, 자음과 모음

이 책은 생물다양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월슨”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편집된 책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등의 다양한 생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형이 유지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추천도서 3 :
“플랜 드로다운”
 폴 호건 지음, 이현수 옮김, 2019, 글항아리 사이언스

‘드로다운(Plan Drawdown)’이란 온실가스가 최고조에 달한 뒤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이 책은 22개국 70명의 연구진이 ‘프로젝트 드로다운’을 구성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후위기 대책 100가지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저자는 기후위기가 세계를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천도서 4 :
“기후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2020, 도서출판 동연

2019년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기후위기와 한국교회의 응답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해있는 한국교회가 성서학, 윤리학, 조직신학 등 다양한 신학적 논의들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영상자료 1 :

“그 섬”

- 기후위기에 직면한 '그 섬'의 이야기

지구가 뜨거워지면 한반도의 생태계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기후위기로 파괴되는 제주도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b_o2PCmjl (게시일: 2020.01.09. 제작: 녹색연합)

영상자료 2 :

“JTBC 차이나는 클래스”

- 질문 있습니다. 137회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 편, ‘지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법을 찾는 교양 시사프로그램 강의입니다.

<http://tv.jtbc.joins.com/replay> (방송일: 2019.12.11)

영상자료 3 :

TED Talk

-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변화에 맞서 지금 행동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

그레타 툰베리가 들려주는 기후위기와 삶의 변화에 대한 TED 강연입니다.

https://www.ted.com/talks/greta_thunberg_the_disarming_case_to_act_right_now_on_climate_change

영상자료 4 :

“최재천 교수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 2019 람사르 생태 문화 강좌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 들려주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9icD-qP6k>

영상자료 5 :

“TED 영상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강의채널 TED를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K_vRtHJZu4&feature=emb_title



2020년 환경주일 연합예배

2020.5.26 | 화 | 오후 2시 서울제일교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0)

| 주 제 | **작은생명 하나까지도**
기후위기시대,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 내 용 | 2시-3시 제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3시-4시 녹색교회 시상식

|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